

# 광주시 본예산 2089억 삭둑...예결위 증액 전무 "이례적"

### 7조1102억 의결...올해보다 1.4% ↑ 당초 예산안보다 2.9% ↓

## 광주시, 자치구 도로사업·노동인권회관 등 줄줄이 부동의

민선8기 들어 첫 편성한 7조원대 내년도 본 예산 중 2000억원이 삭감됐다. 집행부인 광주시는 필요사업을 포함해 20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심의권 남용, 화풀이 성 심의"라고 반발했고, 의회는 상임위에서 실·국장 동의를 거쳐 증액된 예산마저 부동의된 데 대해 "상임위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라톤 심의 끝에 상정된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수정의결했다. 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29개 실·국 예산안(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 비율로는 2.9%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7조94억원보다 1008억원(1.4%) 증가하는데 그쳤고 최종예산 7조7316억원과 비교하면 6214억원(8%) 감소한 수치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 400억원을 240억원으로 줄이는 등 7건에 1433억5613만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본부 전입금 823억원이 감액됐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80건에 걸쳐 2089억원이 삭감됐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관련 예산 3058억 원 중 823억원이 깎였다. "중공 시기 연기와 시 재정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사업비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5·18구묘역 성역화조성 사업비 3억9000만원, 5·18 출동 기증 장비 이전전시 사업비 1억5000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아시아 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도 "효과성이 미흡하다"며 모두 깎였다.

노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16억 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덕남정수장 동북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비 18억2200만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전액 삭감됐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아인계급 공동 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500만원은 선행 연구용역인 주민 설문과 기반조사, 경제성·파급효과, 경기장 운영계획 모두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사업비도 모두 감액됐다.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비는 1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반토막났고, 공공무인자전거 '타랑개' 정거장설치비 3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민참여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시민생존수영 교실과 비엔날레 호수공원 편시조

성, 로고젝트를 활용한 안전하모길 조성사업 등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장소가 적절치 않거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자치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8건(18억5000만원)의 경우 당초 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상임위 심사에서 새롭게 반영돼 증액됐으나 시는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부동의했다. 소위 '쪽지 예산'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노동인권회관 건립사업비 32억원도 재정 부담과 기능 중복을 이유로 부동의했고, 숨은관광지 스토리텔링특화마을 관광지원화 등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된 18건(12억원)도 부동의 처리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시장 "내년도 본예산 화풀이성·감정적 심의" 작심 발언

### "민원성 예산 일부 부동의에 의원들 심의권 남용" 비판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7조 원대 내년도 본예산 중 사실상 증액 없이 삭감에만 2000억 원이 넘는데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풀이성·감정적 심의 방식"이라며 의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옛새간 마라톤 심의 끝에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29개 실·국 예산안(7조2535억 원)에서 2089억8200만 원, 비율로는 2.9%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7조94억 원보다 1008억 원(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종예산 7조7316억 원과 비교하면 6214억 원

(8%)이 줄어든 수치다. 시의회를 찾은 강기정 시장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조금 전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의결안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 속 그동안 관행처럼 돼 있는 것들을 바꿔가자고 요청했다"며 "내년은 고물가·고금리의 위기경제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의례적인 단체 지원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의원들이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은 의

회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고 직격한 강 시장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증액 요청한 사업 건수가 109건이었다. 이 중 예결위와 협의해 31건은 합의해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78건 중 70건은 동의했다. 결국 예결위에서 요구한 109건 중 82건만 부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전체를 동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마지막까지 절실히 요구한 20건의 예산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20건 중 어떤 것을 넣을 거냐고 요청하라'고 해 20건 전액을 동의해 달라. 고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 의견 수렴 예산과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창업패키지 일자리 예산, K뷰티 신



1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의견 밝히는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 = 광주시 제공) 산업 예산이 사라진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했다. 정승호기자

##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GO! GO! 릴레이 챌린지 시행

### ESG 경영 프로그램의 일환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고객과 함께하는 GO! GO! 릴레이 챌린지를 최근 실시하였다. 이번 운동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가치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순천역 대합실에서 현수막 홍보, 예코백 배부, 홍보포스터 부착, 역사전광판(TDS) 홍보문구 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직원이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공기



업으로서 ESG 경영 실천을 선도하고 탄소중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바뀌어나가고 실천하자"며 "고객과 직원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전남도-시군, 도민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 협력

### 경제·투자유치 한마당서 실천협약·민선8기 40만개 목표 전략 발표도

전남도는 13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2 전라남도 일자리·경제·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열어 올 해 성과를 공유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기명 여주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김성 장흥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일자리·경제·투자유치 유공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위한 민선8기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으로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형 일자리 혁신 ▲중앙-광역-기초 협력을 통한 초광역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도민 행복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이 지방 위기 대응

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전남도-시군 간 협력 지원과 시군별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실천협약을 했다. 행사에서는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증서 수여,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등 분야별 우수 시군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에 힘써준 덕분에 올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전남이 세계로 힘차게 뚫어놓도록 가장 든든한 발판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연금재단  
Korea Pens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	급여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104,062원	5.3배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 129

국민건강보험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